

# 호남대 만학도 고(故)여영순 씨 유언에 장학금 3000만원 기탁

지난해 모교인 호남대에 장학금을 쾌척했던 만학도 할머니 학생이 세상을 떠나며 다시 장학금을 기탁, 감동을 안겨줬다.

졸업한 지 14년만인 지난해 7월 호남대학교에 장학금 1500만원을 쾌척했던 고(故) 여영순씨(76)가 연말께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며 "3000만원을 장학금에 추가로 보태달라"는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겼다.

여 씨의 큰아들인 허창식(54세) 씨와 둘째 아들 허정(45세) 씨 형제는 19일 오전 호남대학교를 방문, 이동우 학생처장과 정영기 교무처장을 만나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허창식 씨는 "지난해 7월 장학금 기탁을 위해 학교를 다녀오신 어머니께서 강의실과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박상철 총장님과 학교 측의 따뜻한 배려에 내내 기뻐하셨다"고 회고한 뒤 "어머니가 학생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3000만원을 장학금으로 더 내놓고 싶다"는 유언을 받들어 오를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기탁 배경을 밝혔다.



고(故) 여영순씨



여 씨는 56세에 2003학번 신입생으로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국어국문학 석사학위까지 취득했으며, 지난해 7월 모교를 찾아 "당시 학교에서 받았던 장학금이 너무 고마워서 뒤늦게나마 후배들에게 노트 한 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쾌척했다.

당시 그는 "4남매를 키우느라 학교 진학은 염두를 내지 못하다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난 뒤 늦각이로 용기를 내서 입학했던 기억, 어린 학생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 강의 노트를 달달 외워가며 공부했던 추억, 자신과 자녀들의 글을 모아 '일출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냈던 일이 어찌처럼 생생하다"며 옛날을 추억하기도 했다.

이동우 호남대학교 학생처장은 "모교와 후배들이 더욱더 사랑하신 여영순 동문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고귀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 완도서 무료 법률상담

전남대학교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로 지역민의 생활고충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윤신승 교수)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법무법인 법승에서 활동 중인 송지영, 임대현 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15일 완도 신지면에서 지역민 무료 법률상담에 나섰다. <사진>

상담 사례는 ▲공사현장에서 밥값을 받지 못한 식당 아주머니의 사연 ▲개인상수도관을 매설하려는데 통과해야 할 사유자의 동의를 못 받은 사례 등이었다.

전남대는 코로나-19 등으로 그동안 다소 위축됐던 '법률상담서비스'를 재정비해 법률 인프라가 취약한 곳의 수요를 발굴하는 등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



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공익소송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전남대는 22일에는 신안군 지도읍사무소에서 2차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인사

◆전남도  
◇팀장급(5급)  
◇승진  
▲정책기획관실 고동열 ▲정책기획관실 김동진 ▲국제협력관실 심명섭 ▲미래에너지산업과 김형민 ▲관광과 장석규 ▲스포츠산업과 정형태 ▲장애인복지과 이부심 ▲일자리경제과 전수현 ▲투자유치과 김남규 ▲투자유치과 김순중 ▲문화산업과 정준환 ▲환경정책과 양연재 ▲농업기술원 조혜성 ▲농업기술원 안규남 ▲인재개발원 조준 ▲인재개발원 박미경 ▲보건환경연구원 배주순 ▲보건환경연구원 양정고 ▲보건환경연구원 문희 ▲농업박물관 이명현 ▲도립미술관 이동미 ▲축산정책과 임경순 ▲강진의료원 백애영 ▲전남관광재단 김혜경  
◇전보  
▲대변인실 변준식 ▲감사관실 박시원 ▲인구정책과 김규중 ▲인구정책과 성진섭 ▲청년희망과 김정하

▲청년희망과 안재석 ▲이민정책과 김경진 ▲이민정책과 오소연 ▲여성가족정책관실 하은희 ▲기업도시담당관실 남건 ▲기업도시담당관실 박주환 ▲정책기획관실 선준식 ▲정책기획관 이영식 ▲정책기획관 조선아 ▲국제협력관실 문장숙 ▲국제협력관실 박경애 ▲군형성과담당관 이숙희 ▲군형성과담당관 김초옥 ▲무안공항공화발전추진단 이병석 ▲법무담당관 용승민 ▲법무담당관 박의호 ▲안전정책과 안영현 ▲안전정책과 진환준 ▲사회재난과 김성호 ▲사회재난과 천희석 ▲자연재난과 유홍재 ▲기반산업과 조재술 ▲신성장산업과 김학준 ▲연구개발사업과 이상훈 ▲에너지정책과 조영진 ▲에너지정책과 노규석 ▲미래에너지산업과 김석훈 ▲미래에너지산업과 김세훈 ▲관광과 허세웅 ▲관광개발과 홍일권 ▲관광개발과 정경숙 ▲스포츠산업과 박학정 ▲체육지원단 장중대 ▲사회복지과 나은경 ▲노인복지과 박현아 ▲장애인복지과 손성일 ▲건강증진과 서은숙 ▲건강증진과 장순호 ▲감

염병관리과 임선화 ▲식품의약과 최병록 ▲대우치추진단 김신안 ▲농업정책과 김선주 ▲친환경농업과 윤선주 ▲식량위생과 김상권 ▲식량위생과 오선옥 ▲농식품유통과 최남규 ▲농식품유통과 김지연 ▲농식품유통과 조지욱 ▲해운항만과 박성우 ▲해운항만과 정은영 ▲섬해양정책과 이종현 ▲친환경수산업과 김준열 ▲수산업통계과 김영심 ▲지역계획과 재갈래원 ▲도로교통과 김대식 ▲도로교통과 이광남 ▲건축개발과 장영태 ▲건축개발과 최환 ▲토지관리과 정부경 ▲토지관리과 김수현 ▲자치행정과 정우혁 ▲자치행정과 김경탁 ▲자치행정과 박정희 ▲희망인재육성과 윤준 ▲희망인재육성과 권재철 ▲세정과 박성열 ▲회계과 윤중권 ▲고향사랑과 이상현 ▲대학혁신추진단 김동욱 ▲대학혁신추진단 박상욱 ▲일자리경제과 최세균 ▲중소벤처기업과 윤영환 ▲문화자원과 황광오 ▲기후대기과 민순희 ▲수자원관리과 곽준열 ▲산림자원과 이주미 ▲산림자원과 최우영 ▲산림휴양

과 심정식 ▲산림휴양과 박주완 ▲산림휴양과 황영진 ▲여수사건지원단 임진출 ▲여수사건지원단 김성호 ▲민원행정담당관 정해상 ▲자치경찰위원회 김미영 ▲자치경찰위원회 유시영 ▲농업기술원 김현경 ▲농업기술원 문연안 ▲농업기술원 이재신 ▲인재개발원 이정화 ▲해양수산과학원 김지환 ▲해양수산과학원 서영준 ▲해양수산과학원 주우형 ▲해양수산과학원 김상국 ▲도로관리사업소 이병래 ▲중앙협력본부 남승호 ▲광안관광경제자유구정 박상은 ▲광안관광경제자유구정 김현수 ▲광안관광경제자유구정 형남준 ▲광안관광경제자유구정 박필영 ▲광안관광경제자유구정 김해연 ▲국제농업박람회 양관승 ▲국제수목비엔날레 장영희 ▲행정안전부 이은철 ▲행정안전부 송동하 ▲문화체육관광부 김철홍 ▲환경부 정동호 ▲법제처 박대영 ▲지방시대위원회 객지수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양일 ▲순천대 글로벌대학사업단 이웅 ▲순천대 글로벌대학사업단 김재근 ▲여수세계세박람회

서경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해경 ▲녹색에너지연구원 현병욱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준길  
◆전남개발공사  
◇승진  
◇1급 ▲안전감사실장 백형수 ▲주거복지사업실장 고화빈  
◇2급 ▲기획혁신처장 최호경 ▲경영지원처장 박정호  
◇3급 ▲기획혁신처장 정용기 ▲경영지원처장 정종민 ▲에너지사업처 이주형(이상 행정) ▲안전감사실 최혁 ▲신성장사업처 김희영 ▲공공건축사업처 임기욱(이상 기술)  
◇전보  
◇3급 ▲ESG혁신TF담당장 신창석(행정) ▲KIC사업단장 이준복(기술)

##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0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TV쇼 진품명품(재) 50 만담다큐 호수인(재)	0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재)	15 헬로킴지 공학교실(재) 30 꾸러기 식자교실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맛에 산다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5 내모세모
0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고려 거란 전쟁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스튜디오 K(재)	25 헬로킴지 동물교실3(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 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5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쇼트트랙 남녀 500m>	00 뉴스브리핑
03		00 KBS 뉴스타임 15 시간여행자 투크(재) 30 TV 유치원		
04	00 사사건건	0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쇼트트랙 남녀 500m 결승 외>		0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쇼트트랙 남녀 500M>
0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50 KBC뉴스와이드
0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0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0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월드 24 55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09	00 KBS 뉴스 9		00 도망쳐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타임W	1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	10 오은영 리포트 알뜰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고려 거란 전쟁 스페셜 45 박원숙의 같이 살시다(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개그 콘서트 스페셜	50 스포츠 매거진	50 골렘남도 스페셜
12	55 KBS결핵 다큐멘터리		30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3 스페셜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재)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최고대 호기심딱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50 한글용사 아이아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브와 블랙캣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18:40 EBS 뉴스
07:00 미스터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둘레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30 출동! 슈퍼윌스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오쿠오쿠 내 새끼
07:45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5:15 강신주의 장차 수업	20:00 인간이 되자!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0:20 탑골스타 개칭이
08:20 한글용사 아이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0:40 세계테마기행
08:35 뽀뽀뽀 뽀로로	16:40 당동명 유치원(재)	<이것이 진짜! 네덜 에베레스트 -일생은 한 번은, 시가르마타>
08:50 다이노스터	17:00 페퍼 피그	21:30 한국기행
09:20 신계속의 맛따사이클 다이어리	17:10 마사와 곰	<겨울 할매니얼 1부 600년의 세월, 청춘을 만나다>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뒤통자박사의 빅포털리 쇼츠	
10:30 한국기행(재)	17:25 미스터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2일 (음 12월 12일 乙酉) ☎ 010-9790-8237

36년생 마음먹고 있었던 바를 확실히 추진해야 할 때다. 48년생 지나간 흔적을 잘 살펴보면 힌트를 얻게 되리라. 60년생 중용의 입장에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나를 것이다. 72년생 의무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쫓대 있게 조처하라. 84년생 일반적인 방법의 채택이 무난하다. 96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5, 50

37년생 중추대환 때에 번잡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 49년생 궁궁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의문점이 곧 풀리게 될 것이다. 61년생 뻥치고 보고 있으면서도 작작을 일으킬 수 있다. 73년생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비점을 찾아 내야 한다. 85년생 숨은 기쁨이 크다. 97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되었으니 주마가편하라. 행운의 숫자 : 42, 76

38년생 재수가 있는 날이니 갈밭과 아이들을 잘 선택하여 기회를 잡아 보자. 50년생 변경하지 말고 현행대로 실행하는 것이 유익하다. 62년생 감지되는 징후가 이상하니 현상을 유지하면서 대세를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항상 절대적이지는 않다. 86년생 일거양득의 효과가 크겠다. 98년생 상대의 장난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7, 72

39년생 치밀하지 않으면 결승이 생길 수밖에 없다. 51년생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63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75년생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겠다. 87년생 단일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다. 99년생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수다. 행운의 숫자 : 05, 65

40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제대로 인식하자. 52년생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성국이다. 64년생 이상적인 상태로 종결지어질 수다. 76년생 함께 한다면 부가적 이익이 상당하다. 88년생 무의미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00년생 권유받을 수도 있으나 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48, 60

41년생 시간을 끄는 지혜보다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한 때이다. 53년생 없애거나 변동시키려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65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77년생 망심한다면 실수할 수 있다. 89년생 여명이 밀려가는 어둠을 보게 되리라. 01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7, 57

42년생 다양한 경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54년생 서두르지 않는다면 해 지무는 과격의 처지가 될 것임에 변하다. 66년생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물에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78년생 긴요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90년생 작심했다면 실행하라. 02년생 관리를 잘하라. 행운의 숫자 : 41, 58

43년생 기대했던 바는 물 건너가고 기쁨을 주는 이가 따로 있다. 55년생 재료가 좋아야 결과를 또한 훌륭한 법이다. 67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터질 수밖에 없다. 79년생 시기의 선택을 잘해야만 형국을 유지한다. 91년생 집적으로 판단한다면 큰일 나겠다. 03년생 조건이 호전되면서 훨씬 용이해진다. 행운의 숫자 : 30, 92

44년생 형식과 체계를 중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56년생 신용을 잃은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법이다. 68년생 상호간에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80년생 취약하게 저조한 면모이니 급하지 않다면 가끔씩 뒤로 미루는 것이 이익이다. 92년생 안정 궤도로 진입했다. 04년생 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겠다. 행운의 숫자 : 34, 96

45년생 과욕하게 되면 절망이 따르는 법이다. 57년생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생기면서 바빠질 것이니라. 69년생 의도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존재 방식이 다르다. 81년생 거친 풍량이 밀려오고 있으니 안전하게 대비하라. 93년생 장애 요소는 없으니 편안하게 진행시켜도 된다. 05년생 종일 내리는 소나기는 없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5, 93

46년생 어찌고 어긋나게 되어 있느니라. 58년생 당면한 현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자. 70년생 어떠한 대국에 임하더라도 기본 구도를 고수하라. 82년생 깊은 인연이니 중허 여기는 것이 길운을 부른다. 94년생 사정고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다. 06년생 설마 했다가 크게 당황할 수도 있는 면모로다. 행운의 숫자 : 08, 97

35년생 경험이아말로 국면을 타개하는 최상의 기점점이다. 47년생 중추적인 것은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실수를 낳지 않는다. 59년생 감박 잊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일이다. 71년생 부담스럽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낫다. 83년생 미세하였던 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 95년생 해결하기 곤란한 고민거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6, 83